



우와! 기관총이다 14일 육군 제31사단에서 열린 '31사단 창설 54주년 기념 민·군 화합축제' 행사장은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된 기관총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31사단은 이날 부대개방 행사를 갖고 무기·장비 전시회와 열차 공연 등을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2+a... 광주·전남 배려 나올까

‘광역경제권개발계획’ 6월말까지 최종 결정

내달 지역추진위 출범...당초보다 예산 줄어 마찰 클 듯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2009~2013)이 오는 6월 말 최종 결정된다는 내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전남·북 등 호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현안사업 및 산도 산업을 얼마만큼 반영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등 지역 내에서는 '5+2 광역경제권개발계획'이 호남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5+3광역경제권'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 등이 R&D 특구 지정 적극 검토 등을 조건으로 뒤늦게 '5+2 광역경제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권 별로 광역자치단체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서 산도산업 및 현안사업 등을 조정해야하며, 이를 지원할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최종 계획 결정까지 지역 간 갈등이나 정부와의 마찰 등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말까지 호남권 광역경제권개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광주시와 전남·북 등 호남권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부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균발위는 다음달 중으로 균특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각 광역경제권 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심의를 거친 개발계획을 균발위에서 명칭을 바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확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촉박한 일정 속에 광주시와 전남·북은 34명으로 자체 연구팀을 구성했으며, 최근 비공개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는 등 신재생 에너지사업과 친환경 첨단 부품 소재산업 등 2개 산업과 관련 4대 프로젝트 등 산도산업 및 전북의 새만금사업, 전남의 여수해안엑스포·남해안 연륙교 개발, 광주의 제3순환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5대 프로젝트 등 기존 사업 관련 세부 사업 및 개발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광주는 이들 사업과 별개로 중앙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R&D 특구 지정, 클린 디젤 특화클러스터의 R&D 특구 연계, 전남~화순 간 철도 개설 등을 약속받아 이를 반영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5+2 광역경제권 구상 자체가 광주시와 전남·북을 한 데 묶는데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이하 균특회)를 중심으로 한 재원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데 있다.

실제로 광주시와 전남·북은 지난달 개발계획 초안을 제출하면서 각 지자체의 구상까지 포함한 5년 동안 100조 원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제출했으며, 다른 광역권에서도 이와 비슷한 안을 냈다가 균발위로부터 수정안을 요구 받았다. 균발위는 광역권 간은 물론 광역권 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신규사업의 범위를 '최근 3년 간 균특회계 예산의 평균+10~20%'로 설정했으며, 호남권의 경우 3개 시·도가 합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균발위 지역경제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광역경제권의 개발계획 예산이 '기존 균특회계+a'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기존 광역사업이나 지자체 개별사업 등을 제외하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다"며 "광역권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조정이 안 된다며, 균발위에 이를 맡기려하지만 이는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 각 부처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없는 사업은 향후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해 각종 구상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시는 그나마 정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업을 약속받아 다행이며, 산도 산업을 위주로 각종 사업을 제출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균발위는 이달 말까지 각 광역경제권으로부터 개발계획안을 제출받아 이를 확정될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비교 검토할 방침이어서 다음달 중으로 호남권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한국화물진흥재단은 오는 24일까지 선도산업 거점대학 신청을 접수하며, 선도산업 별 1~2개 대학을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호남권에서는 최대 4개 대학이 선도산업 인재육성을 위해 5년 간 25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구 금호아파트 165㎡ 48만원→38만원 전남 22개 시·군 주택 재산세 52억 감소

광주·전남 주택분 재산세 변동

행정안전부가 14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식가격의 60%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 주택별로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공동 주택의 경우 5만원~10여만원까지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감소폭이 수천원에 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행안부와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인상·인하 폭은 주택 별 공식가격이나 그동안의 납부세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75.5%인 약 440만호가 오르고 141만호가 내리는 반면 지방 소재 주택은 80%인 592만8천호가 내리고 150만호 정도가 오르게 된다.

실제 광주시 동구 금호아파트(165㎡, 2억4000만원)는 48만원→38만원으로 10만원 가량 떨어진다. 화동 아남아파트(179.5㎡, 1억3천400만원)는 30만2천원→26만4천원(-1,

북구 각화글로벌빌(188.09㎡, 1억2천900만원)은 26만7천원→23만4천원으로, 광산구 월곡 금호아파트(73.98㎡, 5천300만원)는 5만3천원→3만1천원으로 낮춰진다.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재산세 감소분 편차가 커서 적게는 기천원에서 10만원까지도 추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시에는 재산세의 영향을 받는 고가 주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감소는 예상되지 않고 있다"며 "단독주택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 감소 해택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전남도에서는 22개 시·군의 주택분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5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지역 55만 여호의 주택에서 종전까지 116억원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려 44.8%가 감소한 금액이다. 주택 1호 당 9천400여원의 재산세가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재산세는 늘어나도 되어 있어 주택분과 토지분, 건축물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세는 810억원 정도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공예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광주시 용역 의뢰

광주시가 문화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집적화) 조성에 나섰다.

광주시는 14일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게 의뢰했다"고 밝혔다. 용역은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과 '2013 세계 공예엑스포 개최 전략 마련' 등 2개 분야에 3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여건 마련과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공예문화산업 클러스터는 33만여㎡의 부지에 총 사업비 1천3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여수엑스포 개최에 맞춰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호남~제주 해저 고속전철 건설 유발효과 생산 44조 고용 34만명

호남~제주 해저 고속전철을 건설할 경우 관광산업 활성화와 건설산업의 확장으로 생산유발효과가 44조원, 고용유발효과는 34만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재훈 박사는 15일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응식 의원)이 주최하는 '호남-제주 해저 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14일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국가 성장축을 형성해 경부 축과 호남 축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특히 "해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브롤터 해저터널(28km), 중국~대만 해저터널(170km), 누산타라 해저터널(26km), 소야 해저터널(43km)과 동북아 지역의 한중 해저터널, 한일 해저터널 등 21세기 메가 프로젝트인 해저터널사업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호남-제주 해저 고속전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또 "호남~제주 해저고속철도는 ▲목포~해남(66km) 구간은 시속 400km/h ▲보길도~추자도~제주(73km) 구간은 해저터널로 각각 건설하는 것이 건설이나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사업비는 약 14조6천억원(지상철도 2조8천억원, 해상교량 3조원, 해저터널 8조8천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1년, 기본설계 1년, 실시설계 1년, 시공공사 8년 등 모두 1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호남고속철도와 동일하게 건설, 열차운행속도를 300km/h로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 26분 소요돼 제주도가 1일 생활권으로 편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저터널 공사와 관련, 이 박사는 "현재 기술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단언한 뒤 "해저터널 구간 최대수심도 보길도~추자도 구간은 60m, 추자도~제주도 구간은 120m 밖에 되지 않아 세이칸 해저터널(240m)과 지브롤터 해저터널(320m) 등 해외 해저터널 최대수심보다 훨씬 얕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기본 구상인 해저 고속도로는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효과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고속철도를 연장해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38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 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1577-3000

광주지사: 062-226-2601

광주서구청 062-383-1133 광주점점점 062-974-3050
 순천점 061-755-7114 목포점 061-244-5882
 익산점 063-843-3800 전주롯데점 063-289-2855
 광주롯데점 062-227-5310 전주시창점 063-282-3210

5월 황/금/연/휴 단독특별가

이제 무인입장이 마크시... 황/금/연/휴 특가 상품

38주년 기념 & 5월 가정의 달 Event

무인출발 1... 4월 4일

무인출발 2... 4월 4일

무인출발 3... 4월 4일

38주년 특급여행 이벤트

가족 가족의 사랑 확인하기

부모님에 사랑의 편지 전달하기

자녀 여행가고 영예 공부하고

파타야 방콕 4월 5일 599,000

목포 4월 5일 549,000

함보디아 앙코르와트 4월 5일 499,000

호주 개울개신들의 설 팔리 4월 5일 499,000

일본 4월 5일 949,000

일본 4월 5일 1,349,000

일본 4월 5일 699,000

일본 4월 5일 699,000

일본 4월 5일 249,000

일본 4월 5일 249,000

일본 4월 5일 249,000

일본 4월 5일 249,000